

# “애들아, 더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 포교원, 어린이용 설법 자료집 전국 사찰에 무료배포 지도자양성기관 9월경 설립 ... 새싹포교 의지 ‘충천’

불교세가 약한 전라남도에서 어린이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최모(33) 법사. 최 법사는 어린이 법회에서 설법할 때마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포교 자료 부족을 절감했다. 그런 최 법사에게 최근 선물이 도착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포교자료 <어린이에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를 1000부 발간했기 때문이다.



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교사 양성기관(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 캠퍼스)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포교의 삼박자라고 할 수 있는 △주지스님의 관심과 의지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중 프로그램 개발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부처님 말씀 어떻게 전할까?>는 포교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법회와 설법>에 실렸던 어린이 설법문안을 취합 정리해 보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다. 설법할 때마다 법문할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과 대한불교교사대학 교사, 본·말사 주지 연수에 참여하는 주지 스님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최 법사에게 또 다른 선물도 기다리고 있다. 9월 서울에 어린

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기대효과 ‘사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놀토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주지스님들에게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삼산 스님은 “사찰 예산 중 1%만 어린이 포교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획기적인 일”이라며 “어린이 포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어린이 포교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28일 불교언론문화상 대표를 맡은 수

포교원과 대한불교교사대학,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 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지스님의 관심과 의지”를 분발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있다.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중 앙승가대학교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불기 2550년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노는 토요일, 동심을 잡아라’ 주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

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기대효과 ‘사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놀토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주지스님들에게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종단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어린이 포교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어린이 포교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현장 어린이 지도자들이 한층 고무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정법으로 군포교에 매진을 ...” 신임 군법사 18명 지관 스님에 임관 신고

각법 서재택 외 18명의 신임 군법사는 7월 3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임관 고복식을 봉행하고 이어 한국불교역사박물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임관 신고를 했다.

을 세운 만큼 임관해서 조계종단을 빛내고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지관 4월 23일부터 육군3사관학교에서 9주간의 교육을 마친 신임 군법사들은 육군 13명, 해군 1명, 공군 4명 등으로 배치되어 군포교에 매진하게 된다.

글·사진=김두식 기자

## 본사마다 의무적으로 해외포교당 건립

### 조계종 포교국장 회의서 제안, 직접 건립·결연방식 등 모색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본사 당 적어도 1개씩 해외포교당을 건립하자.”

조계종 포교원이 7월 4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해외 포교당의 원활한 운영과 상임 지도법사제 유지를 위해서는 교구본사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적어도 1개씩의 포교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교원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현재 100여개 해외 포교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현지 신도에 의해 건립·운영되기 때문에 스님들의 역할과 입지가 제한돼 있고, 개별 인연차원에서 머물러 임기가 불확실하고 스님들의 현지 생활에 대한 관리 및 보후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본사 직할 포교당 건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본사 직할 해외 포교당에는 해당 사찰의 역량 있는 젊은 스님들을 파견해 해당 지역 언어를 익히는 동시에 해외 신도들과 현지인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외 포교당을 개설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교구본사에서

직접 장소를 선정해 포교당을 건립하고 스님을 파견하는 것. 이 방식은 초기 비용과 운영비용이 들지만 전략적으로 건립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지도법사 스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포교운영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해외 포교당 중 교구본사와 인연을 맺고 싶은 곳을 해당 포교당 신도 동의하에 추천받아 종단에 등록하고 스님 파견 및 운영 지원하는 것. 이 방식은 건립비용은 절감되지만 유지비용은 계속 든다

는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는 현 해외 포교당 중 잠재 형태를 스님을 파견하는 방법. 비용은 적게 들지만 구속력이 약해 스님의 지위가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포교원 홍민석 팀장은 “한국불교 해외포교 활성화와 본사 차원의 해외포교역량 강화, 역량 있는 스님 육성 기회 제공 차원에서라도 본사 단위의 해외포교당 운영은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박 전 대표 지관스님 예방 두랏 카자흐스탄 대사로

박근혜 전 나라당 대표가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 앞서 지관 스님은 “지난 번 나쁜 사람들에게 분변을 당했을 때도 찾아가 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최근 한나라당 대표에서 물러난 박 전 대표의 건강을 염려했다.

박 전 대표는 “스님의 평소 베풀어주신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지관 스님은 박 전 대표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호박으로 만든 염주와 단주를 선물했다.

한편, 두랏 바키세브 주한 카자흐스탄 신임대사로 7월 5일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9월에 열리는 제2회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 지관 스님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두랏 대사는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지관 스님이 대회에 직접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스님의 대회 참석을 당부했다.

조용수 기자

## 조계종 5급 승가고시 8월 31일 직지사서

조계종 교구위원회(위원장 박산)는 불기 2550년도 제2차 5급 승가고시를 8월 31일 김천 직지사서 실시한다.

이번 31기 행차교육원 수료자와 행차교육원 수료자 중 5급 승가고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승가고시 과목은 △사미·사미울의 △사미·사미울의 △기초교리 △예식의 △42장경 △유교경 △조계종사(교승전 포함).

이전 5급 승가고시 불합격자는 시험당일 오전 11시까지 직지사도 도착해야 한다. (02)2011-1800

남동우 기자

## “출납사무 마감기한 12월말일로”

### 조계종 재정분과위, 회계년도 기한 변경 논의

조계종의 회계연도 출납사무 마감 시한이 12월 말일(30일)로 바뀔 전망이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적)는 7월 3일 중앙종회 회의실에

서 제31차 회의를 열고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재정분과위는 회계연도에 속하는 출납사무의 마감 기한을 사회적 흐름에 맞춰 기존 1월 20일에서 12월 말일로 변경

하기로 했다.

또 정부나 종단의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관리 집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시행령의 제정근거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찰예산회계법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중앙종무 기관의 예산회계법 뿐만 아니라, 본 말사의 단위사찰 예산회계법도 신설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차기종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 고침

본지는 584호 8면 기사의 ‘호국불교조계종’을 ‘불교조계종’으로 고쳤습니다.

### 만봉스님 49세

#### 팔꿈치 사리 14과 공개

지난 5월 17일 입적한 금어 만봉(萬奉) 대종사 49세 및 진골사리진 건법회가 7월 4일 신촌 봉선사 삼천 불전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운산 스님, 사정원장 월운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봉원사 주지 환우 스님, 최복속 만봉불화전승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영산대제



종정 혜초 스님 등 태고종 종진스님들이 만봉 스님 영정 앞에서 참배하는 모습.

와 추모법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만봉 스님의 팔꿈치 사리 14과가 공개됐으며, 스

의 유족품 50여점도 함께 전시됐다. 만봉스님의 사리는 봉원사 경내 부도에 안치된다. 김주일 기자

# 인류화합 세계평화 3방안 제시

## Three plans of suggestions for world harmony & world peace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1천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협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나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해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

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미국 등 몇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지려 하므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UN기구의 관리하에 두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유지군과 세계가 함께 쓰면 각국들이 개별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가진 나라도 포기한 것이 되어 세계평화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6자회담 등 말쑥이 되고 있는 나라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난점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도덕적 의식수준을 높이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으므로 반듯이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이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립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 宇宙의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비교설법

▶ 상기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又, 日本の方にも要請があれば其處に趣いて極樂世界と天國世界という題で日本語で説法して上げます.

### ● 세계평화 정토회 가입안내

가입비 무료. 아래 전화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됨. 승속과 종파 초월. 집회는 추후 개별 통지.  
(모여라! 세계평화 정토를 이룩하는 데 힘을 합쳐자!!)

본회의 대의명분과 목적 :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여 항상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함.

2006. 7.

## 世界平和 淨土會 代表 法天 鶴山 合掌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전화 02)3273-0841, 011-9230-2192 팩스 02)3273-0840

의견광고